

# ‘힐링’의 원조... <숫타니파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핀 연꽃처럼’,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도 보고 읽어도 본 문장일 것이다. 모두 <숫타니파타>에 들어 있는 부처님 말씀이다. 책은 <숫타니파타> 최초의 해설서다.

<숫타니파타>는 불교 교단이 성립되기 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구도의 길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자상하게 답변해 준 말씀을 모아놓은 것으로, 시와 이야기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들의 모음이다.

초기경전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숫타(sutta)는 빠알리어로 경(經)이란 말이고, 니파타(nipata)는 모음(集)이란 뜻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모아놓은 것이란 뜻이다. <숫타니파타>는 <법구경> 등과 같이 성립된 시기를 인도의 아소카 왕(마우리아 왕조 3대왕 재위 BC 268-BC 232) 이전으로 보고 있다. <숫타니파타>는 무엇보다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초기경전인 <아함경> 등에도 부처의 역사적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아함경>보다 이 경이 먼저 이루어진 경이므로 부처님의 육성이 제일 먼저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의 장’, ‘작은 장’,

‘큰 장’, ‘시(詩)의 장’, ‘피안의 장’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 <숫타니파타>는 범정 스님의 번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번 해설서는 범정 스님의 손상좌인 보경 스님(사진)의 해설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 진흙탕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 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의 말씀에 ‘육식’이 있을 수 없겠지만 <숫타니파타>가 다른 경전들과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경전 속에 담긴 말씀들이 단순한 ‘ 가르침’이란 개념보다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최초의 해설서 동서 고전 총동원해 해설

고, 이 위로가 치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한 시대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고단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시절이다. 마음이 힘든 시절이다. 부처님 시절부터 인류는 늘 마음이 힘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고, 위대했던 것도 그 힘든 마음을 제도(치유)했기 때문이다. 다시 인류는 힘들고 ‘치유’는 너무나 필요할 시절이다. ‘힐링’이라는 단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급부상하여 산업화되고, 힐링을 소재로 한 다양한 책



들이 출판되고 있다. 최초의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야말로 이 불안하고 힘든 시절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아득한 시절부터 변함없이 인류의 위로가 되어준 부처님의 자상한 말씀을 보경 스님이 시절에 맞게 해설해 주고 있다. 특히 불교 교리적 해석에서 더 나아가 동서고금의 감동적이고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논어>, <주역>, <대학>, <노자 도덕경>, <장자> 등 동양고전과 <선문염송>, <육조단경>, <방거사어록>, <임제록> 등의 선서와 <증여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회랍인 조르마>, <리그베다> 등 수많은 책을 인용하여 <숫타니파타>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다양한 책을 섭렵, 깊은 사유를 통한 명쾌한 해설은 이 책의 제목처럼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 준다.

이 책을 마음으로 암송하듯 읽다보면, <숫타니파타>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보경 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숫타니파타>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물론이고 당시 인도의 사회상, 생활상, 수행상, 타종교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당시 인도 사회의 생활상과 수행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근원적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부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위로가 담겨 있는 <숫타니파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생들에게 구체적으로 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 같은 경전이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 ▲보경 스님은...

1983년 송광사에서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선방에서 10년을 보냈다. 송광사와 종단의 소임을 두루 거쳤고, 현재 송광사 서울 분원 법원사 주지, 보조사상연구원 상무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중이다. 저서로 <사는 즐거움>, <이야기 숲을 거닐다>, <행복한 기원>,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등이 있다.

## 자비심 일깨우는 59가지 주제

### 자비심 일깨우기

초강 트로프과 지음 | 김성환 옮김 | 참글세상 펴냄 | 1만2천원



마음 훈련법을 담은 책이다.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자비심을 일깨워주고, 수행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우는 것을 일곱 가지의 지혜로 차근차근 쉽게 알려주는 지혜 계발서이다. 일곱 가지 지혜, 59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교리와 그것의 실천적 적용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체카와 예세 도르제의 <일곱 가지 마음 훈련에 관한 근본 경전>에 초강 트로프와 린포체의 강연 내용을 주석으로 첨부한 책이다.

일곱 가지 마음 훈련은 서기 982년 벵갈에서 왕족으로 태어나 인도의 위대한 불교 학자가 된 아티샤 디판카라 슈리즈나나가 처음 가르친 것으로 전해진다. 아티샤는 십대 때 궁중 생활을 뒤로 하고 출가한 이후로 그의 큰 스승인 다르마키르티 문하에서 광범위하게 공부하며 수행했고, 보리심과 마음 훈련에 대한 가르침도 그에게서 배웠다. 인도로 돌아온 아티샤는 한때 잊었던 가르침들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여 불교의 유명한 수도원 대학인 비크라마실라에서 잠시 가르쳤다. 티베트의 초대를 받아 1054년 경 열반에 들 때까지 티베트에서 약 13년 간 가르침을 폈다. 아티샤의 가르침은 세계 체카와 예세 도르제(1101-1123)가 <일곱 가지 마음 훈련에 관한 근본 경전>에 요약해 실은 이후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59개의 주제들을 대상으로 한 탐구와 수행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상쇄시키고 온화함과 자비심을 기르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 글귀들은 규칙적으로 명상을 수행하고 일상의 모든 사건을 깨어남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59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마음 훈련에는 명상과 명상 후 수행이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티베트에서는 명상 수행을 통해, 즉 보내고 받아들이기라고 부르는데, 이 수행은 “보내기와 받아들이기를 교대로 수행해야 한다. 책은 이 둘이 명상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말한다. 보내기와 받아들이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형성 없는 명상, 알아차림과 자각을 개발하는 수행이 모든 수행의 기반이라고 말한다.

명상 이후의 수행은 일상의 혼돈 속에서 적절한 주제를 증축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주제와 일치시키기 위해 인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경구를 탐구함으로써 각 구절이 자연스럽게 불러 일으키기도도록 한다. 이 일곱 가지 마음 훈련법을 공부하고 주제들을 암기해 둔다면 각 구절들이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도 저절로 떠오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은 잘 잊지 못하는 특성이 있으며, 각 구절이 다시 떠오를 때 마다 친절함과 자비의 본성에 대해 점점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박재원 기자

## 魚丈 일승 스님의 삶과 범성음의 세계... 10명의 증언 정리

### 영산에 꽃피다 -어장 일승, 그 삶의 여정

일승어산적범보존회,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역음 정주서적 펴냄 | 3만원



“어렸을 적 절집 뒷마루에 앉아 범패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전율과 환희가 온몸을 휘감곤 했다. 범패 소리가 봄날 햇살에 섞여 은빛으로 부석지고 있을 때 나는 하염없이 그 소리에 취해 있었고, 늦은 가을 황혼녘 나엽 수북이 쌓인 뒷마당에 서서도 가슴을 적시며 오래도록 그 소리를 음미하고 있었다. 아이 아예 히에 아예 히에 야오어 어 어어 어어... 영혼을 울리는 저 깊고도 그윽하며 맑고도 평화로운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인목 스님은 어린 시절을 그렇게 회상했다. 그 어린 시절 범패라는 것이 ‘부처님이 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이 원하는 바를 장엄하고도 환희롭게 부처님께 고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았을 리 만무했으나 그는 그저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환희로움이 일었다고 했다.

일승 스님은 1920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 대원사 만허 스님 문하로 출가하여 이만허, 성영봉, 김영담, 강보담 스님들로부터 호남 범패와 작법을 두루 익혔으며, 전주 위봉사에서 유종담 스님께 건당했다. 이후 서울 봉원사와 개운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계 범패와 교류했으며, 1987년에는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작법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진감국사의 맥을 이어난 호남 범패를 전수한 스님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전주 익산 광주 등지에서 후학들에게 범패와 작법춤을 전수했으며, 1988년에는 봉서사 어산 작법을 지도하여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스님의 범패와 작법무는 전주, 익산, 광주 서울 경기의 경산

일대에서 후학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일승 스님은 2003년 5월 세수 84, 범파 70세로 말년에 주석하던 경기도 용인시 전통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열반 10주기를 맞아 일승어산적범보존회(이사장 인목)와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범안)에서 스님의 삶을 정리했다.

책은 범모해 가는 영산작법의 모습, 설행의 역사, 호남 범패의 특징 등을 조명했으며, 꾸밈없는 증언을 통해 재승에 대한 정화의 당위라든가 전통의식의 단절 등 한국불교사를 재조명했다.

어산어장은 선원의 조실, 강원외의 강주, 율원의 율주와 자리를 같이 하는 불교의식의 최고 ‘어른’이다. 어장 일승 스님의 소리와 작법무는 현재 조계종의 소리와 작법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스님의 소리와 작법무는 전통의 호남 범패와 작법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호남작법은 한국 범패의 시조 진감산사에 맞닿아 있다. 진감산사는 고향 금마를 오가면서 봉서사에서 후학들에게 소리를 전했고, 그 소리가 현재 봉서사 영산작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책은 총 3부로 엮여져 있다. 1부에서는 스님의 삶을 소개했고, 2부에서는 스님의 범패와 작법의 미학을 조명했다. 3부에는 스님에 관한 논문들이 실려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5 ~ 5/2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범공	휴
2	살이 깊은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앤파크스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5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웅화
6	깨달음	범공	정도출판
7	턱낮한 명상	턱낮한	불광출판사
8	길 없는 곳에서	덕일	작은숲
9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민족사
10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	설우	시유수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The Miracle of Mindfulness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턱낮한 명상

이현주 옮김 | 160쪽 | 11,000원

## 먹고, 견고, 일하는

##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는

## 턱낮한 스님 명상의

##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 턱낮한 명상

이현주 옮김 | 160쪽 | 11,000원

1995년 최초 한국어판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성찰과 감동을 전해온 턱낮한 스님의 대표 명상 책

유니방송 정목 스님 추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관찰 수행 같지만 합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물이듯이 어지러워진 마음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볼때 미혹된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 되새기며, 스님 책이 많은 이의 미혹된 마음을 참마음으로 바꾸어놓기를 기대합니다.”